

# 펠리세이드·모하비·G4렉스턴... 큰 놈들이 몰려온다

## 하반기 대형 SUV 경쟁예고

현대 '펠리세이드', 신개념 SUV 기아 '모하비', 고급사양 확대 운영 쌍용 'G4렉스턴', 배기가스 감축 한국지엠, 내년 초 트래버스 도입

올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등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가 모하비의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으며 현대차가 신형 플래그십 SUV '펠리세이드'를 다음달 전격 출시한다. 여기에 쌍용차의 G4 렉스턴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어 대형 SUV시장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중대형급 SUV 판매가 전년 동



쌍용차 G4 렉스턴.

월 대비 10.9% 증가했다. 쌍용차의 G4 렉스턴은 국내 시장에서 매달 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는 대형 SUV 시장에서 렉스턴 시리즈 점유율이 급속도로 상승하자(2015년 22% → 2018년 60%)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대형 SUV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뒤 중형, 소형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소비자들도 대형 SUV에



기아차 2019년형 모하비.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2019년형 모하비는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중간 트림까지 고급사양의 확대 운영 ▲강화된 유로6 충족 등을 통한 상품선 개성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기아차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아이'를 적용해 내비게이션의 검색 편의성과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또 원격제어, 안전보안, 길 안내 등을 제공하는 텔

레매틱스 시스템인 '유보'의 무상 사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혜택을 강화했다. 현대차가 출시를 앞둔 펠리세이드는 단순히 베라크루즈나 맥스크루즈 후속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형 SUV다. 7~8인승 차 가운데 역대 최대급 사이즈로 지난 6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그랜드마스터의 디자인을 계승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대형 SUV 부진 탈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SUV 판매량이 확대되는 만큼 두 시장에서 판매 확대도 기대된다.

'SUV 명가' 쌍용차는 대형 SUV 판매 1위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8월 상품성을 개선한 2019년형 G4 렉스턴을 내놨다. 쌍용차의 G4 렉스턴은 이번 연식변경에서 배기가스를 대폭 저감하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적용했다. 내년 9월 시행되는 배기가스규제(유로6d)를 1년 앞서 충족시켰다. 외관에서는 18인치 다이아몬드커팅휠을 모던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경했으며, 국내 SUV 최초로 손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도어를 열고 잠글 수 있는 터치센싱 도어를 적용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내년 초 북미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대형 SUV 트래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AI 스피커 '누구'에 '지니톡' 담는다

### SK텔레콤-한글과컴퓨터

4개국 언어 자동통번역 서비스

SK텔레콤은 한글과컴퓨터의 자동통번역 솔루션 '말랑말랑 지니톡'을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에 탑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유닛장과 노진호 한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 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텔레콤 '누구(NUGU)' 이용 고객은 향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된 단어 나 문장에 대해 자동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개개인의 음성 인식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중 교육 효과가 높고,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인 고객의 편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유닛장(오른쪽)과 노진호 한컴 대표이사.

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통번역 기능을 '누구(NUGU)'에 탑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누구(NUGU)' 스피커를 이용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고, 택시기사가 'T맵X누구'를 이용해 외국인에게 경로 및 요금을 안내하는 등 언어장벽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한국지엠 4개차종 리콜... '후륜 브레이크' 결함

리콜 대수 '볼트EV' 최대 기록 볼트, 이쿼녹스, 임팔라 뒤이어

한국지엠 4개 차종 2600여대가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임팔라, 이쿼녹스, 볼트, 볼트EV 등이다. 후륜 브레이크 라인 내 수소가스 잔존 가능성이 있어 제동 시 충분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평상시 보다 더 깊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충분히 제동력이 생성되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4개 차종 중 가장 많은 리콜 대수를 기록한 것은 볼트EV였다. 지난 3월27일부터 6월6일까지 생산된 차종에 한해 리콜 조치됐다. 볼트는 4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생산된 14대, 이쿼녹스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18일 생산 분에 한해 19대, 임팔라는 지난 5월7일에 생산된 1대다.



볼트EV

4개 차종은 모두 지난 5일부터 시점에 들어갔다. 후륜 브레이크 라인 내에 공기를 제거하고 브레이크를 보충해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제동장치와 관련된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 빠른 회수와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한국지엠 관계자에 따르면 후륜 브레이크 라인 내 공기가 남아있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진

다는 위험이 있다. 현재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서신을 통해 개별적으로 리콜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미국에서는 지엠이 2001년부터 10년간 개발한 쉐보레 코발트, 폰티악, 새턴 등 소형차의 키박스 점화스위치 이상으로 13명이 사망해 하원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청회사인 델파이가 납품한 점화스위치 이상으로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장애물과 충돌하는 순간 시동이 꺼지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사고가 났다. 지엠은 2001년부터 점화스위치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4년 2월에야 해당 차량 260만대의 리콜을 결정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과거의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비스센터를 통해 리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영문 기자 ywj964@

## LG유플러스, 업계 첫 골목상권 제휴혜택

서울 종로 서촌마을에 U+로드 운영 16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프랜차이즈 중심의 통신사 제휴혜택이 골목상권으로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 있는 음식점 및 상점에 방문하는 모바일 고객들에게 최대 50% 할인, 1+1 혜택, 경품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U+로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통신회사가 골목상권에서 제휴혜택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고객들에게서 서촌마을을 제휴 매장 및 길거리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약 15개 상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하문로7길 초입에 위치한 카페 '자연의길', 중식당 '취천루'를 시작으로 태국 음식점 '알로이막막', 분식집 '쉬는시간', 일식당 '히바치광', 베



모바일 고객이 LG유플러스의 'U+로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커리 '금상고로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케이크 카페 '진저그래스맨', 핫도그집 '몽소시지인더홀' 등 다채로운 상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U+로드'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멤버스 앱 등에서 접속 가능하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과 제품별로 상이하다.

/김나인기자

## SK이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160% 꺾충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률 최고 전 세계 출하량 순위 6위로 상승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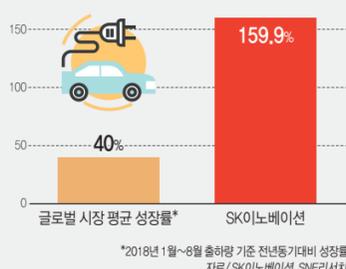
10일 SNE리서치가 발표한 '2018년 1~8월 전세계 전기차에 출하된 비중 국산 배터리 출하량 순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SK이노베이션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단기 시장 점유율도 첫 3%를 넘어섰다.

전세계 출하량 순위로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각각 2, 4, 6위를 기록했다.

LG화학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삼성SDI는 한 계단 내려갔으며 SK이노베이션은 한 계단 상승했다.

2018년 1~8월 SK이노베이션의 전기

### 전세계 전기차배터리출하량 기준 성장률



차 배터리 누적 출하량은 총 428.9MWh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0% 증가하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하량 기준 1~10위 성장률 평균은 6위인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40%에 불과, SK이노베이션의 1/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출하량을 전년 대비

2.6배 가량 늘리면서 8월 단기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도 3.2%를 넘어섰다. SNE리서치는 니로 PHEV, 기아 소울 BEV 등 판매 증가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 수주?후 증설' 원칙을 따른다. 신규 수주에 따른 공급량 확대에 따라 설비 신·증설 등 신규 투자를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초 착공에 들어간 서산 배터리 2공장이 올해 하반기 준공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연간 4.7GWh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착공한 연산 7.5GWh 규모의 헝가리 공장 및 중국 장저우 시에 건설 계획을 밝힌 7.5GWh 규모 배터리 공장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경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연간 생산량은 약 20GWh까지 확대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